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9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합니다.
- 멋쟁이학교 5학년 해외문화탐방(유럽)이 9월8일(화) ~ 10월3일(토)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사랑방공동체 학교 등록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주세요.
- 평양노회 복시찰회 정기총회가 10일(목) 오전 11시에 수유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 세례와 입교문답 준비교육 신청은 오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시원 문화체험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결혼기념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6 호

2026년 9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지리산 산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년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을 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리산 종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기존에 갔던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하루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산행은 쉽지 않습니다. 매번가는 여행이라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산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멋쟁이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가끔은 지리산 여행이 생각이 나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와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 했지만 걷기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왔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산행시작 한 시간이면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다. '맞아 힘들었었지. 일 년 밖에 안 되었지만 그 힘든 것 다 잊어버리고 또 왔구나.', '날씨가 괜찮아야 안전하게 완주 할 수 있을 텐데.',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올해는 하루가 짧으니 더 쉬울 것 같다.' 등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걷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때론 여유가 생기면 산세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말을 건네거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산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종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을 것이고, 날씨가 더워서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취미로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줄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야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산을 자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산을 통해 보람과 재미를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산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원인도 있을 듯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취미와 운동을 할 수 있고 집에서 핸드폰만 가지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취미가 산을 타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산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친구

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룹지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가족이 함께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부가, 어머니와 딸이 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행도 종주의 인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짧은 기간 천왕봉 정상을 보기 위한 목표인 것 같았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씻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치약이나 비누, 샴푸 등 세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도 충분하지 않고 먹거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나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산행이 주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하고, 환경이 주는 영향으로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갈 때 얻는 힘도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와 대화에서 오가는 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서 떠나 온전히 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광야나 산으로 가지 않았나 합니다. 살기 바쁜 생활에서 정신없이 사는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시대에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도 지리산종주와 비슷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작은 존재라는 것과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 재미만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반복되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
<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05 414 / 322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에스라 7장

제목 : 제국을 움직인 하나님의 도구, 에스라

1. 내용: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귀환하다 (What)

<문단구분>

1~5절 에스라 소개

6~10절 에스라의 귀환

11~26절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27~28절 에스라의 고백

2. 의미: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다 (Why)

- 1) 아론 가문인 조상들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였다.
- 2)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큰 신임과 총애를 얻었다.
- 3) 에스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형성되었다.

3. 적용: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How)

- 1)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자.
- 2)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자.
- 3)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자.

안녕하세요, 멧쟁이 김예원입니다. 저는 8명의 학년 친구들과 조민아 선생님과 함께 3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과 함께 지내다 보니 알게 된 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눈이 나쁘고 탕수육은 다들 짭뽕을 좋아합니다. 또 워낙 잘 먹어 돼지 학년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학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모두가 너무 즉흥적인 것입니다. 그런 저희의 즉흥력 만큼이나 못지않은 조민아 선생님의 즉흥력이 더해져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멧쟁이학교에서는 한 주에 세 번 학년 친구들과 성서일기 나눔을 하는데, 보통 생활관에서 나누지만 저희는 두 번이나 다른 장소에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강여행으로 갔던 강원도 고성외 바다였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모래사장앞에 앉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성서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의 다양한 나눔을 듣는 것이 평소와는 달라 좋았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시현이에게 모래를 던지기도 하고 바다를 보느라 제대로 듣지 못한 순간도 있어 어떤 장과 절을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밖에서 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번엔 특별하게 기타와 찬양집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는지 찬양 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와 울동이 더해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멧쟁이 김예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의 즉흥력과 선생님의 즉흥력이 만들어 낸 순간들이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성서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0^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신명기 30 : 20

10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43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신명기 30 : 19~20, 에베소서 4 : 1~6 설교자
성가대 찬양 570 비움사랑방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05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김예지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일치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기후 재난과 전쟁, 물질문명의 한계
와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성실히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됨. 교회는 부품을 교체하는 기계나 단
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고통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
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하나 됨은 교회의 본질이자 성도들
이 지켜가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회복. 생명이라는 수직적 기둥과 하나 됨
이라는 수평적 기둥이 온전히 만나는 거룩한 교차점이 바로 그리
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인간 사
이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어렵고 각박한 세상 속에 참된 평화와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어린이 멧쟁이 언니 오빠들이 보이니 꾸러기도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언니 오빠랑 함께 놀면 안되냐 물어옵니다.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안되지만 쉬고 놀때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9월에 함께 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달력을 꾸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률놀이도 하고 채육도 했습니다. 탕탕볼을 각자 혼자서 튕겨서 받고 위로 던져서 받아보았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신이 나서 깔깔 웃으며 공을 따라다닙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도전하는 동생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어린이와 함께 포천천 생물다양성탐사에도 참여하고 반고흐레플리카전도 보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하고 질문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언니들을 따라다녀서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전시장에서 큐레이터선생님 설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반고흐처럼 색칠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작품들을 보며 좋아하는 그림이랑 사진도 찍고 그림 속 선들을 보고 바람이 분다며 바람처럼 팔을 벌리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다른 관람객이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추웠다 더웠다 꾸러기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꾸러기들이 건강하게 계절변화에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학교는 평화롭게 아이들의 고함과 재질대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깊은 수면 속에서 교사들은 등록문제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 했지만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힘들어도 좋으니 무사히 등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이런 와중에도 우리 어린이들은 꾸러기와 함께 포천천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포실포실 대표이사인 한호남집사님께서 애써 주셔서 포천천의 다양한 생태를 탐사 했고 우리 고장에 희귀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더 많은 생태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수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콩당에서 먹었습니다. 다녀와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5점 만점에 5점을 준 친구들이 많았고 환경보호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주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 교사 : 하경임 >

멧쟁이학교

부쩍 높아진 하늘과 제법 짧아진 해,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달콤한 포도 냄새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낀 2학기의 첫 생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조직된 각 부서의 계획 보고회를 통해 2학기 자치활동의 기틀을 다졌고,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이 돋보이는 동아리들도 새롭게 꾸려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화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 주제인 공동체 이해를 돕기 위해 여주에 있는 새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정성스레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같은 지향을 품고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마음 깊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6학년은 9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본격적인 대입 준비의 부담감 속에서도 성실히 자리를 지키는 6학년 멧쟁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9/8)에는 5학년들이 유럽문화체험학습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낯선 세상 속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깊고 넓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교사 : 장성아 >

공동체에 대해 배우러 갔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멋쟁이학교 학생들과 함께 풀내음 가득한 여주의 새터마을 공동체를 방문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에 대한 심도있는 수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들을 방문하시고 또 공동생활을 실천해오고 계셨기에, 참 귀중하고도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주한 권혁신 목사님과 김지현 사모님의 얼굴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강의도 그렇고, 점심식사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셨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멋쟁이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비빔밥 60인분 이상, 참기름 1병, 비빔장 3병, 많은 김치, 수박 2통, 국 한 솥, 계란 5판을 싹 먹어치워서 잔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청하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목사님도 기대 이상이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을 함부로 반출할 순 없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 적어두었습니다.

1. 브루더호프 6개월 살며 들었던 말 : “한국 가서 브루더호프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변합니다.”
2. 내가 사는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3. 공동체는 속도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지향하는 바를 온전히 갖고 답을 지향하는가가 중요하다.
4. 단순한 신앙집단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답을 향하고 있고, 실천의 장이다.
5. 나와 너무 다른데, 서로의 몫을 사는데, 동역자인 것.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다른 존재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기분 좋은 일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배움들, 저에게도 새로운 지식들과 경험의 편린들이었습니다. 기념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생각은 깊어져가고, 한 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한 때였습니다. 주보를 읽으신다고 하시니, 이렇게 살짝 마음을 남겨보겠습니다. 귀중한 손길과 생명, 그리고 보물같은 삶의 경험을 나누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61장, 368장

성 경 : 누가복음 11장 1절~3절

말 씬 : 성령을 구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네팔 대홍수를 위해>

네팔,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수가 1003명, 실종자 네팔측 3천916명(외국인 583), 중국측 543명(외국인 261)으로 총 4천462명입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터마을>

- 1)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며 흠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 2)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신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고 성실히 잘 준비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 3) 농사에 관한 제목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지역별 방모임 시작을 위해
- 2) 학교 등록 준비의 전과정이 원활하도록
- 3)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와 꾸러기를 위해(포실포실공동체)

<생활공동체 소식>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여름작물을 마무리하고 김장에 쓸 배추를 심고 해충 방지망도 씌웠습니다. 이제 곧 가을 걷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거리들을 기르기 위해 애쓰는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생활이 시작되면서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

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